

7/20/25

설교 제목: 애굽으로 도피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예레미야 44 장 1-30 절

(렘 44:1)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므딕들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렘 44: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렘 44:3)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렘 44:4)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렘 44:5)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렘 44:6)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렘 44:7)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렘 44:8)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렘 44:9)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렘 44:10)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렘 44:11)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렘 44:12)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렘 44:13)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렘 44:14)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 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렘 44:15)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렘 44:16)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렘 44: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렘 44:18)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렘 44:19)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렘 44:20)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렘 44:21)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렘 44:22)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렘 44:23)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렘 44:24)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렘 44: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렘 44:26)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와 말씀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렘 44:27)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렘 44:28)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렘 44:2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렘 44:30)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에 와서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해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렘 44:1)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므돴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백성들은 므돴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등 애굽 전역에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벨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사는 요하난 일행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여지껏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분노를 사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들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된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서 와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악행을 계속할 경우 애굽의 성읍에도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들과 같이 재난을 내려 황무지가 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렘 44: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렘 44:3)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렘 44:4)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렘 44:5)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렘 44:6)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왜 재난이 발생했습니까?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당신의 분과 노여움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직도 재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들은 마치 매를 벌려고 작정한 것같이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그들을 꾸짖으시며 경고하십니다.

멸절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렘 44:7)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젓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렘 44:8)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렘 44:9)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렘 44:10)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폐허가 되는 재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읍들이 왜 멸망했는지 모를리가 없습니다.

조상 때부터 왕과 왕비에서부터 백성들까지 계속된 악행이 가져온 참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파국적인 재난을 반면 교사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율법과 법규를 무시하고 애굽 신을 섬김으로 저주와 수치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렘 44:11)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렘 44:12)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렘 44:13)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렘 44:14)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 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으며, 거기에 더하여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들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남은 자에서 배제됩니다.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할 것이며, 조소거리와 모욕거리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 이들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고 합니다.

하늘의 여왕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 아스다롯을 가리킵니다.

이 여신은 전쟁과 사랑의 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대변합니다.

(렘 44:15)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렘 44:16)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렘 44: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렘 44:18)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렘 44:19)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들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살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드리는 것을 폐지하고 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BC 622 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후 유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C 609 년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협력하여 애굽에 대항하는 전투에 나갔다가 므깃도에서 전사했고, 요시야 왕에 이어 유다 왕이된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의해 폐위되고 여호와와 김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BC 605 년 바벨론이 갈그마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근동의 패권을 거머지게 됨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를 섬기던 여호와와 김은 급히 정책 노선을 바꾸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격동기를 거치며 유다는 바벨론의 3 차례에 걸친 침략을 받게 되고, BC 586 년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일련의 재난을 겪으며 이 재난의 원인이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고 전제를 드리지 않아 진노를 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거세게 저항하자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 최후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의 오래되고 뿌리 깊은 배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이 멸망한 것같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도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절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렘 44:24)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와 말씀 들으라

(렘 44: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렘 44:26)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와 말씀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렘 44:27)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들이 서원한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들을 칼과 기근으로 진멸시키고 소수만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남은 유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렘 44:28)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 주기 위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실 재앙의 표징을 주십니다.

표징은 애굽 왕 호브라가 그 대적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렘 44:2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렘 44:30)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듯이, 애굽 왕 호브라 (Hophra; 589-570)도 그의 원수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실제로 호브라는 통치 말년인 BC 570년 리비아에서의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자기 군대의 반란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 도피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그 원인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행하던 악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재난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니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들을 향해 심판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겠다고 선언 하십니다.

이들을 멸절시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멸망시킨 것같이 그들이 도피해 살고 있는 애굽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 대가는 심판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은 사랑인지라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시탄의 미혹이니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미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이키는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